

교리 상식 - 금식재와 금육재

✦ 사귄, 섬김, 나눔의 공동체 ✦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1-2항)

금식재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재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 평상시에 늘 하는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연중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키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수난 성금요일’ 에는 금육재뿐만 아니라 금식재도 함께 지킵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금식재나 금육재는 부활 준비와 자선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시대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부터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속죄와 금식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겼습니다. (이곳 클리블랜드 교구에서는 매주 금요일 금육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과 금육 규정의 완화가 ‘재를 지킴’의 폐지, 또는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해 ‘금식과 금육의 재 지킴’의 근본정신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재와 금육재를 통해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 그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식재와 금육재는 참회의 정신으로 극기를 실천하여 내적, 외적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절제의 미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역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저절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선교위원회

(가해) 사순 제5주일
(2023년 3월 26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교사회 기도회	19:00
캐뎀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캐뎀 기도회	20:30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